

G20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재편: 한국에의 함의

최원기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기존 세계경제질서의 재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9월 24-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3차 회의에서도 성공적인 결과가 도출된다면 G20 정상회의는 향후 글로벌 거버넌스 개편의 중심체로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주어진 규칙을 준수하는 역할만 수행하여 왔다. 2011년까지 G20 정상회의의 공동의장국으로 G20 정상회의의 운영에 참가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마침내 국제경제질서의 재편과정에서 적극적인 규칙제정자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갖게 된다.

이러한 기회를 낭비하지 않게 경제외교의 지평확대와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한 새로운 외교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국제경제적 지위에 상응하는 의무와 역할에 소극적이었던 과거의 자세에서 벗어나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조율을 위한 외교적 노력 및 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개도국의 관심사항인 IMF, World Bank 등의 국제금융기구 개편 문제에 있어 이들 기구의 정당성을 확보(개도국의 실질적 참여 확대)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글로벌 차원의 국제금융질서 개편논의와 지역적 차원의 경제협력 강화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572 (697-120)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5-651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 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

목 차

- 1. 서론
- 2.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의 변화
- 3. 새로운 국제협력의 틀로서 G20의 부상
- 4. G20 대응 한국의 새로운 외교 전략 구축 필요성

1. 서론

-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의 위기인 현재의 경제위기로 인해 기존의 세계경제 질서는 급격한 변동을 겪고 있으며, 위기극복 이후에는 새로운 형태의 질서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
- 2008년 11월 15일 처음 개최된 “금융시장 및 세계경제에 관한 정상회의”(이하에서는 ‘G20 정상회의’)가 1-2차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및 국제금융체제의 재편을 둘러싼 국제협력의 중심체로 등장하였음.
 - G20 정상회의는 “G20 재무장관회의”를 정상급 회의로 격상하여 개최한 것으로, 제1차 워싱턴 정상회의 결과 참가국들은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5개의 공동원칙 및 47개의 중·단기 실천 과제(Action Plan)를 도출한바 있음.
 - 2009년 4월 2일 개최된 제2차 런던 G20 정상회의는 29개항의 정상선언문 및 3개 부속서를 채택하고, 재정확대를 통한 거시경제정책 공조, 보호주의 저지, 신흥개도국 자금지원, 금융규제 및 감독강화, IMF의 재원확충을 통한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에 합의한 바 있음.
 - 오는 9월 24-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예정된 3차 회의에서도 1-2차 회의와 같은 성공적인 결과가 도출된다면 G20 정상회의는 명실상부한 세계경제 위기 이후 글로벌 거버넌스 개편의 중심체로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는 브라질, 영국과 함께 향후 글로벌 거버넌스 개편 논의의 중심 협의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G20 정상회의의 공동의장국(Management Troika)의 역할을 통해, 2011년까지 G20 정상회의의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가할 예정임.
 -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한반도와 동북아 중심의 지리적 범위에 국한된 외교를 넘어서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국제사회의 현안해결에 적극 기여함으로써 우리 외교의 지평 확대 및 국제적 위상 제고를 도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외교적 자원과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음.

및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관점에서 G20 대응 외교를 활성화하고, G-20 의장국의 지위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외교적 과제를 적극적으로 개발·추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G20 공동의장국 역할의 수입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외교 지평확대 및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한 새로운 외교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음.

- G20체제의 부상이라는 새로운 외교적 기회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외교적 대응 논리의 개발 및 새로운 외교적 과제를 발굴·제시해야 할 것임.
 - 특히, 글로벌 차원의 국제금융질서의 개편논의와 지역적 차원의 경제협력 강화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신아시아 외교구상”의 추진전략을 구체화해야 할 것임.

라. 개도국의 리더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 강화 방안 모색

- 한국은 국제경제적 지위에 상응하는 의무와 역할에 소극적이었던 과거의 자세에서 벗어나 G20체제를 활용하여 G20체제 내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조율 및 중재자의 역할을 통해서 ‘개도국 리더’로서의 국제적 위상/이미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주요 개도국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이들과의 협의 채널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특히 개도국의 관심사항인 IMF, World Bank 등의 국제금융기구 개편 문제에 있어 이들 기구의 정당성을 확보(개도국의 실질적 참여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특히, G20 체제의 성격상 모든 참가국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방안 보다는 점진적이고, 가시적이며, 단기적으로 실현가능한 협력 방안을 강구, 제시해야 함.
 - 예를 들어 G-20 참가 개도국 및 비참가 중진 개도국을 포괄하는 가칭 “개도국 정책대화포럼(Policy Dialogue Forum for Emerging Market Economies)”의 창설 방안을 검토하고 개도국 간 정책대화 및 정보교류를 활성화, G20 정상회의에서의 개도국 대표성 강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통해 ‘개도국 리더’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확보해야...

2.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의 변화

가. 세계경제 세력구도의 다극화

- 세계경제의 세력구도가 기존의 미국 중심 단극체제에서 유럽 및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개도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다극 구도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음.
- 현 글로벌 경제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은 더 이상 유럽과 개도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음. 이러한 변화는 2009년 4월2일 개최된 제 2차 G20 런던 정상회의에서 명확히 드러났음.
- 재정확대를 중시하는 미국의 입장은 유럽과 중국, 브라질 등의 신흥국가들의 입장과 대립, 회의결과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데 반해, 중국의 영향력이 런던회의를 계기로 확대되어 중국이 미국과 양대 축을 이루는 미·중 양강구도(G2)를 형성하였고, 브라질과 인도 등의 개도국 발언권이 강화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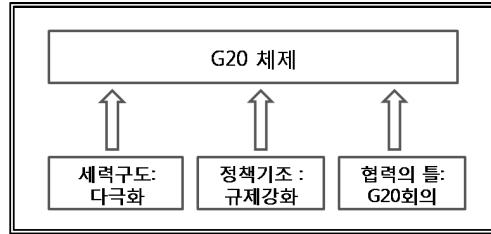
나. 경제패러다임의 변화: 신자유주의의 퇴조

- 글로벌 경제위기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주도국인 미국의 금융시스템의 붕괴에서 시작됨에 따라 규제완화(de-regulation)를 강조했던 신자유주의 기조가 퇴조하고 금융시장의 규제와 감독을 강화(re-regulation)하는 추세로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
- 지난번 2차 런던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은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및 감시의 실패가 금변위기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규제완화와 시장개방을 중시하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세계적 확산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런던 정상회의에서 금융규제 강화를 목적으로 금융안정화포럼(FSF: Financial Stability Forum)을 금융안정이사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로 확대·개편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향후, 금융규제강화가 진행되어 국제금융시장의 운영 및 금융시장 감독 행태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됨.

우리나라는 G20 정상회의의 공동의장국으로서 국가위상을 국제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아...

G20 정상회의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국제금융체제의 재편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심체로 등장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다. G20 중심의 세계금융 경제질서의 재편

- 런던 정상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는 기존의 선진국 중심의 G7에서 주요 신흥개도국이 참여하는 G20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G20체제가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 구축의 중심체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 G20 회의체가 새로운 금융질서 개편의 핵심체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제금융질서의 의사결정체계 및 운영시스템에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이와 아울러 G20 참가국들이 IMF의 기능강화 및 지배구조 개선에 합의함으로써 IMF에서의 개도국의 발언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개도국의 글로벌 거버넌스에서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3. 새로운 국제협력의 틀로서 G20의 부상

가. G20체제의 제도화 가능성

- G20 런던 정상회의는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와 개도국에 대한 지원 합의 등 예상 이상의 성공을 거두면서 G20체제가 새로운 국제적 의사결정체로 대두됨으로써, 향후 세계경제질서 재편의 새로운 중심체로 자리매김하게 됨.
- 1차 워싱턴 회의에서는 금융위기 극복 및 금융체제 개편방안에 대한 원칙적이고 선언적 합의만을 도출한데 반해, 2차 런던 정상회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G20체제가 국제사회의 새로운 규칙제정자(rule-setter)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으며, G20체제는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로서 제도화되는 기틀을 다지는데 성공하고 향후 다극화되고 있는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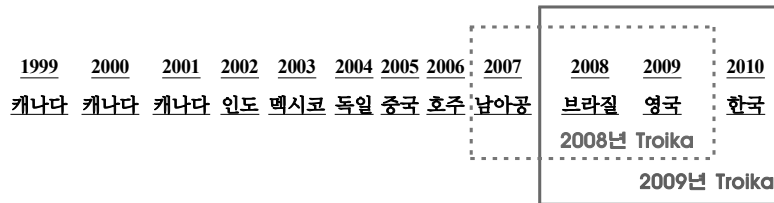
경제 질서의 핵심적 기구로써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짐.

나. G20체제의 전신

- G20 회의는 1997년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협의체 필요성 대두에 따라 1999년 9월 IMF 연차총회 당시 개최된 G-7재무장관회의에서 장관급 회의체로 출범하였으나,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과 금융위기의 전세계적 확산 이후 미국 부시대통령의 발의로 G20 회의를 정상급으로 격상하여 제 1차 회의가 워싱턴에서 개최되었음.
- G20회의는 별도 사무국 없이 의장국이 임기(1년)동안 사무국 역할을 하고, 의장국 수임은 그룹별 순환방식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G-20 의장국은 의장국 수임년도 前後 1년씩 G-20 Management Troika의 일원으로 회의 의제 및 운영, 선언문 작성, Study 그룹 활동 등과 관련하여 의장국과 협의체제를 형성하고, 전/후임 의장국은 각종 회의시 의장국과 Co-Chair 역할 수행함.

〈G20 그룹별 의장국 수임 현황 및 Management Troika〉

제1그룹 ('01, '06)	제2그룹 ('02, '07)	제3그룹 ('03, '08)	제4그룹 ('04, '09)	제5그룹 ('05, '10)
캐나다(01) 호주(06) 사우디 미국	⇒ 인도(02) ⇒ 남아공(07) 러시아 터키	⇒ 멕시코(03) ⇒ 브라질(08) 아르헨티나	⇒ 독일(04) ⇒ 영국(09) 프랑스 이탈리아	⇒ 중국(05) ⇒ 한국(10) 일본 인도네시아



선진국 중심의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논의가 G20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이 같이 참여하는 형태로 발전

다. G8의 약화와 글로벌 거버넌스에 개도국 참여 확대

-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심체로서 G20의 역할이 확대 강화될 경우 기존의 G8은 G20내에서의 하나의 선진국 모임체(caucus)에 불과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고, 현재와 같이 G20이 선진국과 개도국간 협의를 통한 경제위기 타개 모델로서 제도화 될

**국제경제질서의 재편과
정에서 적극적인 규칙제
정자로서 자국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어야...**

경우, G20체제는 향후 경제이슈 뿐만 아니라 안보이슈까지 다루는 다자협력체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짐.

- G20 런던 정상회의에서 차기 정상회담을 올해 말에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9월 24-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3차 회담이 개최되어 G20체제의 지속성이 강화됨으로써, 향후 G20체제가 국제경제 거버넌스의 중심체로서 지속적으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짐.

4. G20 대응 한국의 새로운 외교 전략 구축 필요성

가. 세계경제 질서의 재편 대응 새로운 외교전략 마련 필요

- G20체제가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재편의 중심체로 부각함에 따라 한국은 금융위기 극복이후 새롭게 형성될 세계경제질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전략의 구축 필요성이 시급해졌음.
- 한국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수동적으로 주어진 규칙을 준수하는 역할만을 담당해왔으며, 그동안 한국의 소득이 급속히 늘어나고 경제규모가 증가해도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왔음. 그러나 이제는 국제경제질서의 재편과정에서 적극적인 규칙제정자로 국제적 경제협력 조건 조성에도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야 함.

나. G20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리더십 발휘의 토대 마련

- 한국은 G20 정상회의 공동의장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초 토대를 마련해야 함.
- 지난 2008년 11월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영국, 브라질 등과 G20 의장국으로 선임되어 국제 금융·경제질서 재편과정에서의 주도적 역할 및 실질적으로 기여를 통해서 국제적 위상 제고의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음. G20 그룹의 공동의장국으로서 국제금융·경제질서의 개혁에 대한 agenda-setting 및 이행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막중한 책임을 수임했으며, 이에 따라 국제금융 질서의 재편에 대한 분석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필요가 커짐.

다. G20 대응 외교(G20 Diplomacy)전략의 개발 및 추진 필요

-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조율을 위한 외교적 노력